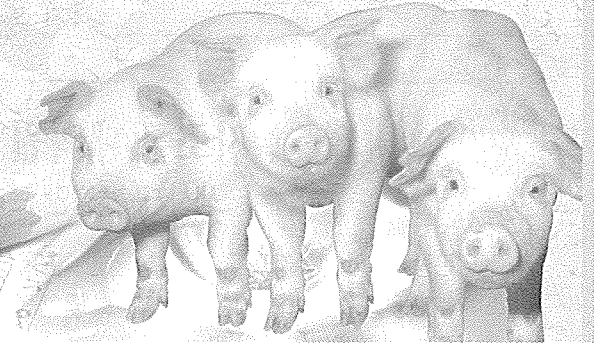


축산정보



곰팡이독소 제랄레논·보미톡신 규제된다

돼지에 구토를 유발시키고 돼지 생식기 계통에 붙임 등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제랄레논과 보미톡신 곰팡이 독소가 규제된다.

지난 7월 13일 경기도 안양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회의실에서 사료내 병원성미생물 모니터링 관련 협의회가 농림부 주최로 양돈협회, 검역원,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농림부 담당자는 참석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료내 곰팡이 독소인 제랄레논과 보미톡신에 대해 규제치를 정하도록 농림부 고시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개정키로 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 검역원 관계자는 “롬주 실험 결과 돼지콜레라에 오염된 혈분 이용시, 돼지 체내에서 롬주가 발생한 사실을 국제학회에 게재하여 심사중에 있다”고 밝히고, “국내에서 혈분을 이용한 보조사료 제조공정 규격이 없어서 지도가 안 되며, 140 이상에서 혈분을 가열해야 하나 연료비 등을 고려해 온도처리를 제대로 안하는 곳이 있는 등 문제가 있어 혈분을 이용한 보조사료 제조 공정 규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돈협회도 사료내 병원성 미생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 규격 등을 법제화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혈분 시설기준을 140로 가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규격을 마련키로 했으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혈장 단백질과 내장 분말은 수입위생조건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한 돼지에서 생산된 돼지 혈액을 이용하여 제조한 사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돼지 소모성질환 전문 컨설팅사업 '개시'

6개월간 전국 500개 신청농가 대상

최근 정부가 마련한 돼지 소모성질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돼지 소모성질환 지역별 컨설팅 사업이 7월부터 실시돼 농가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소모성질환에 대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돼지 소모성질환 발생농가 및 신고농가 200호와 밀집사육 및 의심지역 농가 300호 등 500농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컨설팅 사업비는 농가당 3백만원으로 국비 50%, 자부담 50%이다. 각 지역 양돈농가 중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7월 10일 전후로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축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대상 농가 및 컨설팅 자문단은 각 지역 도청의 컨설팅 운영대책반에 참여하는 양돈협회 각 도협의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지부장 등이 시·군과 협조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한편 컨설팅 자문단은 도별 5개반 이내,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자문단별 관리농가는 30호 이내로 운영된다.

한·미 FTA 2차 협상 종료

한·미 FTA 2차 협상이 농업을 비롯한 의약품, 자동차 등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7월 14일 종료됐다.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5단계로 나누고(최장 16년), 쌀 등 초민감품목은 초장기 이행기간을 설정할 것,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상품분야 양허안 틀과 동일한 수준의 이행기간을 농산물에도 적용할 것(최장 10년) 등을 지속 주장하여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결국 양허안 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릴 3차 협상에서는 농산물, 상품, 섬유 등에서 품목별 개방여부와 개방기간 등 가장 중요한 개방대상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8월 중순 품목별 개방여부와 개방기간을 정한 개방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했다.

2차 협상 결과 및 양허안 공개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7월 14일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와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번 협상에서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영무역과 저율관세할당(TRQ)제도, 세이프가드 및 위생검역(SPS) 등의 부문은 농업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자체 없이 2차 협상 결과와 양허안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농가 맞춤형 분뇨처리 모델 보급된다.

정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평가를 통해 축산농가 여건에 적합한 분뇨처리 모델을 선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현재 전국 축산농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에 대해 7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서 농림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장단점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축산농가 여건에 적합한 분뇨처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성된 가축분뇨자원화 전문위원회는 지난 6월 평가지침을 제정했으며, 8월부터 시·도 추천을 받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기술설명을 거쳐 약 3개월간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평가결과 우수 자원화시스템으로 선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농가규모 자원화시스템의

경우 내년부터 개별농가 분뇨처리 시설 신규 및 개보수자금 지원은 우수 자원화시스템 모델 적용 시 우선 지원키로 했으며, 공동자원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선정 모델 중에서 시범사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계획이다.

퇴·액비 시범포 본격 운영

자연순환농업대책의 일환으로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전환과 이용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50개소의 퇴·액비 시범포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농림부는 시범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토양 분석, 재배성적 조사,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고 연찬회도 개최키로 했으며, 연찬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개소당 3백만원)도 지원키로 했다. 2007년에는 전국단위 퇴·액비 시범포 운영 평가회를 개최해 우수 시범포 운영기관에 대해 포상도 실시한다.

자연순환농업팀 조직 확대될 듯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이 조직이 더욱 확대되어 지속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5일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농림부와 농협이 공동 주관해 개최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자연순환농업팀 이상철 팀장은 종합토론 시간에 “지난해 9월 처음 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14일 자연순환농업대책을 발표한 이후, 팀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6개월간 팀을 연장조치한 후 향후 조직을 확대할 계획을 농림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 문제 해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길부 도드람 양돈조합장은 종합토론에서 정부에서 세운 가축분뇨 자원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연순환농업팀이 더욱 확대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사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현실화’

농림부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축사시설 및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도 현실화했다.

농림부의 지원 대책 등에 따르면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해 주고, 5백억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농가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이번 수해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1천여억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농림부는 2006년에 적용할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44개 종목에 대해 인상을 하고, 종목별로 3.2~400%까지 인상했다. 따라서 축사의 경우에는 번식돈사가 22.8%, 비육돈사가 6.5% 각각 인상됐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돼지는 6.1%가 인상됐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기준

(단위 : 원)

구 분	공 종	규 격	단 위	단 가	구 분	공 종	규 격	단 위	단 가
축 사	우사	한육우사	m ²	121,000	축사부대시설	분뇨처리시설	닭(케이지)	"	78,500
		유우사	"	158,000			가축입식	한우	송아지
	돈사	번식돈사	m ²	239,500		육성우		"	1,560,000
		비육돈사	"	165,000		젖소		송아지	마리
	계사	산란계사	m ²	200,500		육성우		"	1,234,000
		육계사	"	168,500		돼지		자 돈	마리
	간이축사	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m ²	39,000		육성돈	"	139,000	
축 사 부대시설	분뇨처리시설	한육우	m ²	78,500	육계	병아리	마리	427	
		젖 소	"	78,500	중 추	"	740		
		돼 지	"	78,500	산란계	병아리	마리	611	
		닭(평사)	"	78,500		중 추	"	1,877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성능검정 강화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21일에 개최된 해양배출 가축분뇨 이물질제거 대책회의에서 가축분뇨를 이물질 제거기에 통과시켜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제품이 많아 농가가 장비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검정시 성능 검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정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한 사후 검정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보급 및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별 가축분뇨 공동

처리장 설치지원 및 하수처리장 병합처리 방안도 검토하는 등 분뇨처리가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지역단위 통합 관리센터 구축 등 분뇨 육상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물질 제거기 및 양돈농가의 축사시설 또는 자체 제작한 설비를 사용해 이물질을 제거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이물질을 많이 함유한 고농도의 가축분뇨는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등 이물질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처 신설 방침에 축산업계 강력 반발

정부와 여당은 지난 '식품안전처' 설립을 놓고 논의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난색을 표함에 따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명숙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처'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조만간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식품안전처를 신설방침에 대해 축산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선진국에서도 농식품 관련 업무는 농업식품국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식품안전처를 두는 것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축산업계는 그동안 식품안전사고는 식품안전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교환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범 축산업계가 공동으로 국민과 정부,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하고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방문취업제' 도입, 7월부터 비자발급

그동안 고국을 오가는데 불편이 컸던 중국 동포와 구소련 지역 동포들이 일정기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이른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어, 7월부터 비자발급이 이뤄진다고 최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방문취업제 도입에 따라 중국과 구소련 동포에 대해 1회 3년 체류가 가능한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된다. 따라서 동포들은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산업 부가가치 76조3천억원 달해

농림부는 농림생산업에 농림관련산업을 합친 농림산업 전체의 2004년 부가가치를 추계한 결과 76조3천억원으로 국내 총 부가가치의 11.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3,806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총 취업자의

16.9% 수준으로 나타나 농산업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농산업 중 농림관련산업의 부가가치는 51조8천억원으로 농림업의 2.1배, 종사자수는 2,057천명으로 농림업 종사자의 1.2배에 달한다. 관련 산업을 내역별로 보면 전방으로 비료, 농약 등 투입재산업이 3조2천억원에 51천명, 후방으로 연관된 농산물가공 및 유통산업이 40조2천억원에 1,918천명, 농림업관련 서비스 및 지식산업이 8조5천억원에 8만9천명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농산업(어업포함)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기준 10.0%이며, 미국은 2001년 기준 12.3%이다.

축산물 GAP인증 도입 '진중'

축산물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도입에 앞서 도입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양돈협회와 한우협회,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관계자 등은 축산물 GAP인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2008년도에 축산물 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했으나, GAP가 도입될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선정 및 HACCP 인증제도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축산물에 대한 GAP를 명확히 구분하고, GAP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련고시에 대한 보완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가축공제 민영 보험사에도 개방

가축공제 사업이 민영보험사에도 개방된다. 또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 2회로 공제로 분납도 가능해진다.

농림부는 현재 농협만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 사업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민영보험사 1개사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가축공제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민영보험사

의 가축공제 참여는 공제모집 사업자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축산농가 스스로 공제사업자의 서비스 정도 및 공제요율 등을 비교해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공제금 수준도 올 8월부터 축종별 보장비율(소 80%, 돼지·닭 95%)을 상한으로 그 이하 보장비율을 농가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경제 수준에 맞춰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2회로 공제로 분납이 가능해진다. 한편 현재 가축에만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축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우수 브랜드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 확대

농림부는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브랜드화 '09년부터 500억원으로 확대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만 브랜드사업 대상 경영체를 선정해 총 80개 내외의 우수브랜드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3년에는 돼지 전체 사육두수의 70%를 브랜드화 한다는 계획으로,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체의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 대한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2008년까지 300억원에서 2009년부터는 500억원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사육규모가 적은 경영체는 인근지역과 연계해 전국단위의 광역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브랜드 경영체의 취약부분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모든 사육두수 증가세 지속, 6월 '사상최고'

돼지 사육농가수 감소세 지속, 호당 사육두수 800두 육박

6월 돼지 총 사육두수가 903만2천두로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고, 모든 사육두수는 99만9천두를 기록해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6월 가축통계 조사결과 2분기 모돈수는 99만9천두를 기록해 전분기대비 0.9% 증가하

고, 전년동기대비 4.5%가 증가했다. 특히 '04년 12월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사상최고치를 달성했다.

2분기 돼지 총 사육두수는 산지가격의 꾸준한 강세로 번식의향이 높아 모든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PED 등 소모성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903만2천두로 집계되어 지난 1분기 901만두에 비해 0.2%, 지난해 같은 기간 878만6천두에 비해 2.8%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특히 사지가격은 지난해 11월 21만2천원/100kg에서 올해 2월 24만6천원, 올해 5월 29만1천원을 기록해 큰 폭 상승했다.

5월 도축두수 105만두, 전월과 비슷

5월 돼지 도축두수가 105만3천980두를 기록해 전월 104만8천886두보다 0.5%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감소해 전월 또는 전년동월대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암컷은 53만6천103두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0.4% 각각 증가하고, 수컷은 51만7천877두로 전월대비 0.5% 증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1~5월까지 집계된 도축두수는 539만8천134두로 작년 같은 기간 564만3천418두보다 4.3%가 줄었다.

한편 돼지 생체중량은 평균 112kg을 나타내 전월평균 111kg보다 1kg 늘고, 작년 평균 110kg보다 2kg 늘었다.

양돈사료 생산량 증가

5월 양돈사료 생산량이 41만5천883톤으로 지난달 39만8천450톤보다 4.4%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같은 달 41만4천791톤보다도 0.3%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5월 한 달 동안 젓먹이돼지 25만36톤을 기록해 전월대비 2.7% 증가했으며, 젓돼지는 10만7천107톤으로 전월대비 8.8% 증가했다. 또한 육성돈전기는 10만9천436톤으로 3.6% 증가, 육성돈후기는 6만5천545톤으로 2.4% 증가, 비육돈은 6천337톤으로 전월대비 1.3% 증가했다. 또 비육돈출하는 7천963톤으로 9.8%, 번식용수돼지는 944톤으로 2.1%, 번식용암

돼지는 1천448톤으로 17.6%, 임신돼지와 포유돼지는 각각 5만3천750톤, 3만8천317톤으로 각각 2.4%, 1.4%씩 늘었다.

그러나 5월까지 생산된 양돈사료량은 206만6천761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210만7천998톤보다 2.0% 감소했다.

미 쇠고기 수입 늦어질 듯

姜 검역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시점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문일 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 7월 5일 전문지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지난 4일 보낸 미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을 납득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해 추가 답변을 미국에 요구했다”며 “우리가 납득하고 확인이 가능한 답변이 오지 않는 한 수입재개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미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유입되는 쇠고기의 전수 개방검사와 전체 물량의 5%내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쇠고기 수입 여부는 추가 답변이 도착하면 다시 논의될 계획이다.

‘돼지 앞·뒷다리 고기 구워먹는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돼지고기 부위 중 앞·뒷다리 근육을 ‘구이용’으로 이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축산연구소는 “돼지고기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비선호부위는 근육 내 지방함량이 적고, 맛이 퍽퍽해 주로 양념육과 육가공품 제조에 이용되고 있으며, 덩어리 상태로 거래되고 있으나 소비부진으로 삼겹살이나 목살 등 선호부위 가격의 1/4 정도로 판매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돼지고기 앞·뒷다리 부위 활용도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해, 각 근육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결과 맛과 육질 및 생산량에서 구이용으로

이용 가능한 근육으로 앞다리에서는 넓은등근(갈비덧살), 가시위근(꾸리살), 가시아래근(부채살), 깊은흉근(주걱살), 뒷다리에서는 반힘줄 모양근(홍두깨살)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산연구소는 “선발된 근육들을 특수부위로 이용하면 비선호부위 적체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돼지고기 소분할 정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육가공업계와 공동으로 상품화, 실용화를 해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약 등록허가, 미·일본보다 많아

국내 동물용의약품 및 항생제의 등록허가 품목수와 사용량이 선진외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량 절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신호철 건국대 수의과교수는 지난 7월 5일 동물의약연구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등록허가 품목은 05년기준 7천540품목으로 일본 3천615, 미국 2천7개 품목에 비해 대략 2배, 3.8배가 각각 많고 축산물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도 우리나라가 0.92%로 일본 0.36%, 미국 0.25% 등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책적인 지원과 계도로 동물용 의약품과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미량이지만 항생제 잔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 소·닭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 돼지고기 생산 및 소비국의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이 쇠고기와 닭고기 소비량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발표한 2006년도 식육편람에 따르면 2005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돼지고기 소비량이 17.4kg으로 쇠고기 6.6kg, 닭고기 7.4kg보다 많으며, 중국은 돼지고기가 37.5kg으로 쇠고기 5.4kg, 닭고기 7.7kg보다 현저하게 많이 소비되고 있다.

한편 일본 또한 돼지고기 19.6kg, 쇠고기 19.2kg, 닭고기 14.7kg으로 조사됐으며, 필리핀은 돼지고기 소비량이 13.6kg, 대만 42.0kg, EU 회원국 40.3kg, 루마

니아 29.4kg, 러시아 17.0kg, 우크라이나 11.7kg으로 조사되어 이들 국가들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쇠고기나 닭고기 소비량보다 많았다.

또한 캐나다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30.3kg, 멕시코 15.1kg, 미국 29.1kg, 브라질 10.9kg 등으로 주요국들에서 돼지고기가 꾸준히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돈수입, 미국·캐나다산 '최다'

품종별 대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 순

한국중축개량협회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2005년까지 수입된 중돈은 총 1만6천30두로, 이 가운데 미국에서 수입된 중돈이 총 8천209두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캐나다 4천968두로 뒤를 이었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된 중돈이 전체 수입물량의 80% 정도를 차지했으며, 나머지가 영국,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호주, 아일랜드, 핀란드, 일본 순으로 수입됐다.

품종별로는 대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 버크셔, 햄프셔, 웰쉬, 라지블랙, 체스터화이트, 피어트레인 순으로 많이 수입됐으며 총 9품종의 중돈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도 기준으로는 대요크셔가 846두, 랜드레이스 527두, 듀록 364두, 버크셔 62두, 햄프셔 37두가 각각 수입됐다.

고품질 돈육생산 한국형 중돈개량 필수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기초작업으로는 무엇보다 한국형 중돈을 개발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가 발행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지침서'에서는 경제적으로 우수한 돼지 도체를 생산하는 주요 요인이 번식률, 생산성, 맛이라며, 도체특성이 유전력에서 비롯되므로 정확한 중돈 선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돈장에서 중돈을 구입할 때는 우수한 육질에 대해 증명된 계통을 구입하고, 경제형질별 유전력과 유전상관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지방과 살코기라는 돼지고기 성분, 즉 지방함량이 돼지고기 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함량은 돼지고기 품

질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근내지방(마블링)의 계통적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다른 지방층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근내지방을 증가시키는 품종을 계속적으로 이용해야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돈개량 전문가들은 중돈수입에 대해 "외국산 중돈을 수입하고는 있지만, 국가별로 선호부위가 달라 외국의 육종방향과 국내 육종방향이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고급육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달일령과 육량, 산자수 등을 보고 중돈을 수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겹살과 목살을 얼마나 먹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6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9월 7일~9일, 3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2006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가 오는 9월 7일(목)~9일(토)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8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맛있는 유혹, 행복한 체험'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7억원의 예산으로, 한·육우, 돼지, 낙농, 육계, 산란계, 양봉, 가공품 등 생산자 브랜드가 참여대상이 되며, 경진대회 및 브랜드 축산물 전시, 홍보관 설치 운영, 소비자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검역원, 방사선조사 축산물 검사방법 확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최근 수입 축산물의 검역과정에서 방사선조사 축산물을 정확히 검지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방법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물리화학적 검사기법인 '전자스핀공명법(ESR)'으로, 뼈가 포함된 경우 검지 정확도가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문일 검역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기법을 활용해 방사선조사 축산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상대적

으로 방사선조사를 하지 않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돼지일본뇌염 방역 소독 철저 당부

돼지일본뇌염의 지역별 항체양성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을 통해 "여름철에 발생하는 돼지일본뇌염의 시·도별 항체양성을 편차가 매우 다양하므로, 항체양성률이 평균 이하인 지역에서는 소독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5년도 모돈 항체양성률은 56.5%로 2004년도 61.8% 대비 5.3%p 감소했으며, 특히 강원, 충남, 전북, 경북지역은 양성률이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비육돈 항체양성률은 2005년도 26%로 전년대비 7.5%p 감소했으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 등이 낮게 집계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등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농림부는 읍면 등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을 주요과제로 한 여성농업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전국 1,420개 읍면의 34%에 해당하는 476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5세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됐다.

한편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존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센터',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 문의 : 농림부 여성정책과 02)500-1605

제주산 돼지 부산물 태국 첫 수출

제주산 돼지 부산물이 지난 12일 태국으로 처음 수

출됐다. 제주도는 영농조합법인 탐라유통과 제주식품(주), 제주농축산(주) 등 도내 수출육가공업체 3곳에서 돈육 부산물 24톤(1만5천달러, 간과 돼지껍질)을 태국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첫날 수출물량은 제주식품(주)이 간 1만4,460kg(9,399달러), 탐라유통이 돈피(돼지껍질) 7,200kg(4,248달러), 제주농축산(주)이 돈피 2,600kg(1,534달러) 등이다.

계통조성돈 양돈협 검정소로 출품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자체개발한 계통조성돈(듀록종 모돈) 14두를 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로 출품했다. 현재까지 조성된 계통조성돈은 평균 일당증체량이 1,030g으로 산육능력이 우수하고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선호하는 체형 및 발굽이 강건해 인공수정정액생산용으로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산연구소는 계통조성이 완료되는 2007년부터 연간 100두 정도를 우수 돼지인공수정센터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농림부 '읽어주는 보도자료' 서비스 개시



농림부는 고령의 농업인이나 농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일반 국민들이 농업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읽어주는 보도자료'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음성파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처음 제공했다. 따라서 농림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읽어주는 보도자료' 배너를 클릭하면 보도자료를 청취하거나 음성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